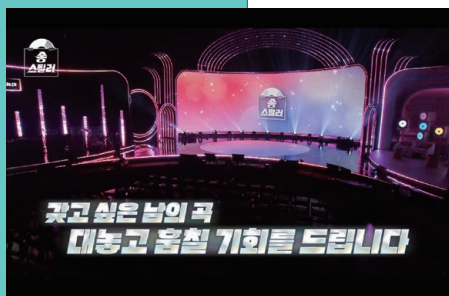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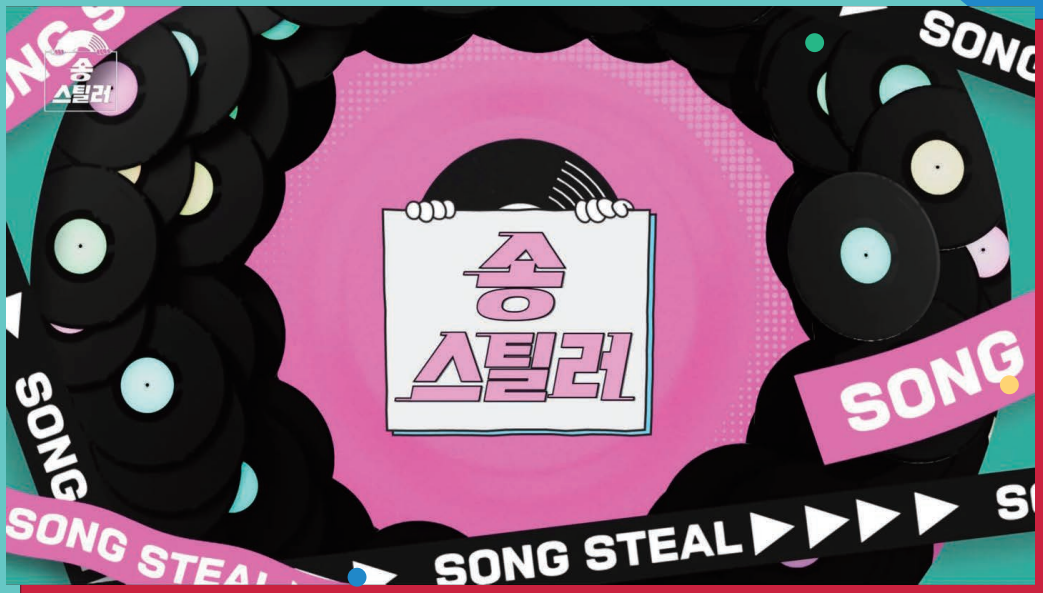




편곡의 홍수 속 신선한 발견

끌린다면 훔쳐라! <송스틸러>

고현수 MBC 기술관리팀 사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음악이라면 어떤 곡이 떠 오르 십니까. 아마 다들 각자의 이유로 다양한 명곡들, 하나씩은 품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 술자리에서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음악을 사랑하는 방식이 모두 다 같지 않다는 게 매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때론 강성 리스너들끼리 핏대 높여 싸우기도 합니다. 음악 장르라는 것이 이제는 '그놈이 그놈'화 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각자 가진 취향 차이에서 오는 거구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참 신선하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놓고 훔치는 남의 곡 전쟁전, 끌린다면 훔쳐라!”. 올해 상반기에 방영했던 MBC <송스틸러>입니다.

구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심플합니다.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을 원곡 가수가 한 번, 다른 가수가 한 번 불러서 투표를 통해 스틸인지, 원곡이 더 좋은지 보는 형식입니다. 어쩌면 요즘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편곡 콘텐츠 중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가수 개인이 콘텐츠를 엄청나게 공급하는 세상입니다.

▶ 그럼에도
<송스틸러>를
보아 할
몇 가지 이유

담백한 편곡

요즘의 편곡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극적인 편곡에 치우치진 않았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구슬프거나 과하게 웅장해지거나 하는 것이 '투표'를 받아 승자를 가르는 '대결구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편곡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스틸러>에서는 편곡은 담백하게, 아티스트들의 보컬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든가 하는 경쟁이 아니다 보니 음악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듯합니다.



추천곡



이홍기 - 어느 멋진 날 (원곡 정용화)

코멘트_ 원곡자 정용화보다 이 곡을 잘 소화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으나, 이홍기는 역시 이홍기였다

반가운 얼굴

<송스틸러>에서는 오랜만에 무대로 찾아온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인, 환희, 옥주현, 별, 이기찬, 왁스!!! 그 시절 MP3 플레이어의 제한된 용량에 맞춰 추리고 추려 넣은 명곡들을, 시간이 지나 지금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고맙기도 하고 몽클해지기도 합니다. 추천곡을 하나로 추리고 싶었는데 명곡이 많아 힘들 것 같습니다.



추천곡



왁스 - 화장을 고치고, 별 - 12월 32일

코멘트_ 드림이, 소울이, 송이 엄마가 가수 별로 잠시 돌아왔다, 무대에 선 것만으로 몽클하다

‘보컬리스트’ 아이돌의 재발견

아이돌이라 하면 왠지 보컬보다는 다른 면모를 더 많이 키울 것 같다는 말도 이제 꽤 구시대적 발상인가 봅니다. ‘실력파’ 가수란 단어는 ‘연기파’ 배우, ‘체력파’ 레슬링선수처럼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개성으로 사랑받는 아이돌 세계에서 ‘보컬리스트’란 수식어는 꽤 갖기 힘든, 멋진 칭호인 것 같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급부상한 H1-KEY부터 레드벨벳 웬디, NMIXX 릴리, 샤이니 온유 등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한층 높은 감동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무대를 보여줍니다.



추천곡

웬디 - 남 (원곡 선우정아), 파일럿화에 방영
코멘트_ 레드벨벳 보컬대장이 작정하고 불을 뿜는다!



페스티벌급 섭외력

페스티벌에서 자주 보일 법한 아티스트의 출연이 눈길을 끄니다. FT아일랜드의 이홍기와 CNBLUE의 정용화부터 선우정아, 김범수, 권진아, 빅나티(Big Naughty), 데이브레이크, 하동균, NELL의 김종완까지. 늘 페스티벌 양이를 하며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팬이 무대를 볼 수 있을 자체에 이미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출연진들을 다 불러서 페스티벌을 열면 티켓 가격은 얼마쯤 할지 생각해 봤는데, 웬만하면 저는 티켓을 살 것 같습니다.



추천곡

한계 - 김종완 (NELL)
코멘트_ 잊고 지낸 넬팬도 다음 공연 일정 한번 찾아보게 됨



적절한 규모

네이버 VIBE에서 제공했던 <On-Stage>나, EBS의 <스페이스 공감>과 같은 소규모 공연장 형식의 콘텐츠여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 공연을 즐겨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대형 콘서트가 주는 웅장함과는 반대로, 바로 내 앞에 있는 아티스트가 오직 나에게 쏟아내는 것만 같은 감정이 전달돼서인 듯합니다. 큰 스테이지와 소극장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은 듯해 오랜만에 소공연장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천곡

인형의 꿈 - 존박 (원곡 러브홀릭)

코멘트 유튜브 '존이나 박이나'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의 본격 본업 모멘트



▶ 마무리하며

짧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독자 여러분을 <송스틸러> 한번 보시라 유혹해 봤습니다. 읽으시면서 문득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들어보고 싶어지셨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모처럼 신선한 구성의 TV 프로그램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면 좋겠습니다. 섭외가 관건이겠지만요. 시즌 2가 제작된다면, 또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기다리던 아티스트들이 하나둘 콘서트 공지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주변 분들과 이런 저런 명곡 얘기하시다가, 오랜만에 내 가수 한번 보고 싶어진다면 콘서트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권해봅니다.



송스틸러